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본격화

전남도·순천시-국제원예생산자협회 성공 개최 업무협약 세계 대표정원 도약...2월 현장 실사·3월 최종 결정

전남도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성공을 기반으로 정원문화 세계화를 위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5일 "순천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KOREA는 3일 순천시청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대표 정원으로 도약,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정원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허석 순천시장, 안홍균 AIPH KOREA 회장을 비롯해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 순천시새마을회지회장, 이문자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전남도·순천시 공동개최 ▲박람회 개최 예산 확보 및 인력 지원 협력 ▲국제박람회 인증 및 심사, 계획, 감독, 운영 및 사후관리 ▲국내외 자료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박람회 교육 및 홍보 등의 공동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500만명 이상이 순천을 방문, 대한민국 정원생태수도 됐다"며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전남이 동북아 정원문화·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남도·순천시 공동개최하며,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 한 곳에서 개최됐지만,

2023년 박람회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룡산성, 연향뜰, 봉화산 등 도심 전역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람객도 2013년(440만 명)의 2배에 육박하는 8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리뉴얼, 도심 내 생활정원 조성 등을 통해 순천을 명실상부 정원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AIPH 최종 승인은 개최 신청서 제출 후 2월 AIPH 현장 실사와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AIPH 총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순천시청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정원박람회는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개최할 예정이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허석 순천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안홍균 AIPH KOREA 회장.

광주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 정치인들 출마 포기

수사기관 조사 인사 출마 예정 선거 규정 개정해야 목소리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가 된 일부 정치인들이 체육회장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체육회장 출마가 예상되면서 직선 체육회장 선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에 대해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등구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진선거 전 광주시의원이 이날 마감된 후보 등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구체육회 출마를 준비하던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도 사실상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오는 15일 일제히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지만 일부 정치인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2년 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서구체육회 선거는 서대석 현 정장과 임우진 전 정장의 지인들이 나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구 체육회장 한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선수 등 사망 2명, 부상 25명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한 특혜성 조례 제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체육회 한 관계자는 "공직자 선거에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착수 여부도 당대 경선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첫 직선 체육회장 선거는 관련 법규가 미비해 과열·혼탁선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전 시의원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현(비례대표) 전 광주시의회 의원을 지난 2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을 보좌관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나 전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전 의원은 제명 처분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전 의원의 후임은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차순위인 최미정(50) 민주당통합지원회의 지원위원이 이어받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도로 248km 정비 1584억 투입 전남도, 설 농수특산물 온라인 특판행사

올 상반기 85% 집행

전남도는 올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58개 지구 248km를 정비하는데 15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 상반기에만 계획의 85% 이상을 신속히 집행, 정부의 재정집행 목표치(62%)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7개 지구 46km에 724억원이 투입된다. 장성 북하-도계 간, 남평-화순 간 등 6개 지구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신규지구인 해남 북평-북일 간 5.9km는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성 북하-도계 간 3.5km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가 준공되면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장성호 유원지 연결이 원활해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51개 지구 202.5

km로 860억원이 들어간다. 31개 지구 113.26km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무안공항 진입도로와 해남 송지-고담 나들목 등 2개 지구는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진 개치내, 무안 원동-청룡 2단계 등 2019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과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완성을 위한 신안 장산-자라간 연도교, 완도 당복우회도로 등도 착공한다. 그동안 장기간 공사로 주민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무안 일로-시중, 영암은 곡-매월 등 설계 완료 후 미착수한 지구는 '선 보상 후 착공 방침'을 반영기로 했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와 물류비용 절감, 주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이 조기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3일까지 남도장터서 572개 제품 최대 60% 할인

전남도가 2020년 경자년 설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농수특산물 온라인 특판 행사를 '남도장터'에서 진행한다.

전남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는 남도의 맑은 하늘, 기름진 땅, 청정바다, 생산자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전남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www.jnmall.kr)이다.

설 명절 특판행사에선 한우, 전복, 굴비, 과수 등 총 572개 제품을 최대 60% 할인하기로 했다.

남도장터 쇼핑몰뿐만 아니라 카카오, 우체국쇼핑, 위메프, 롯데슈퍼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20개 채널에서 동시 진행한 다.

1만~2만원 대의 알뜰 선물세트부터 식

품명인 제품,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등 8만~9만원 대의 품격있는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출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선물용이나 제수용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연말까지 지역 농수특산물 매출 확대와 홍보를 위해 제품 정보가 수록된 '2020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우수브랜드 홍보책자'를 제작해 전경련 회원 기업체, 호텔, 출항인사, 전통시장, KTX역사 등 총 2600여 개소에 4000부를 배부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농식품 유통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추세는 명절 선물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며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로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인도·태국 시장개척단 10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태국 시장개척단 참가 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인도, 태국 시장개척단은 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인도 뉴델리, 첸나이, 태국 방콕을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1대1 상담을 한다.

인도의 인구는 12억명 이상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최근 3년간 6%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등에 따른 '탈중국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시장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화장품, 라면 등 수출에 용이하다.

시장개척단은 전남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자사 제품 영문 카탈로그 또는 동영상 가진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수출을 준비하는 내수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라남도 또는 광주전남코트라 지원단에 신청하면 된다. 바이어 발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 사전에 물색해 소개한다. 따라서 참가 기업은 바이어 발굴 부담이 줄어 자사 상품 홍보에 집중할 수 있다. 파견 규모는 10개 기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항공료 50% (최대 100만 원), 바이어 발굴비, 현지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다. 참가 기업은 잔여 항공료와 숙박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 한 해 10회에 걸쳐 러시아, 중앙주(오세아니아), 동남아 등 14개 나라 21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